

이프 유자리에 '애경 와이즈파크' 밀리오레엔 '이랜드NC백화점' 리버사이드 호텔엔 '로드힐스'

대형업체들 '유통전쟁' 서막

충장로 상권이 변한다

쌍 어떤 업체 들어오나



광주 동구 충장로 옛 도심에 올 봄 대형 쇼핑몰이 잇따라 개점할 예정이다. 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경그룹은 동구 충장로 3가 '이프 유(IF U)'를 인수해 복합쇼핑몰 '와이즈(Y'Z)파크' 개점을 위해 새 단장 중이며 이랜드그룹은 동구 충장로 4가 밀리오레에 'NC백화점' 광주점, 황금동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동구 황금동)에는 지역 기업이 스트리트 밀터 테마상가인 '더 로드 힐스'가 한창 공사 중이다.

◇대기업 자본 앞세운 '와이즈 파크'=우선, 가장 적극적인 입점 의지를 보이는 곳은 애경그룹이다. 애경은 자산개발사인 AM플러스를 통해 충장로3가에 복합쇼핑몰 '와이즈파크'를 4월 말에 오픈할 계획으로 분양 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은 광주의 향토 백화점 시대를 연 거든 백화점 터다.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한 '와이즈 파크'는 서울 홍익대 부근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오픈하는 것이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총

16개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면적 2만9002㎡의 매장에 40개 브랜드가 입점한다. 층별로는 영패션·카테고리컬러 매장(지하1층), SPA브랜드(지상 1~3층), 여성패션(지상 4층), 패밀리레스토랑 및 식음료 코너(지상 5~7층)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에서 1분 거리에 있으며, 충장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충장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향토 기업 스트리트형 밀터 테마상가 '더 로드 힐스'=인접한 황금동 옛 리버사이드 호텔 터에는 '더 로드 힐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에 처음 도입되는 스트리트형 밀터 테마 상가인 '더 로드 힐스'는 지상 4층, 61개 점포 규모의 복합상가다.

지역 기업인 모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오준철)가 기획한 향토형 상가라는 점에서 대기업이 전면에 나서는 다른 매장과는 구별된다.

유통인구가 많은 광주 최고의 중심상권이자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과 금남로 4가역에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졌다.

충장로 일대 지역 독립브랜드 점포가 대거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기업인 탓에 자금난 등으로 2월 말 예정했던 입점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진출 발판·지역 밀착형 백화점 'NC백화점'=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도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 충장로 옛 밀리오레 자리에 상반기 안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NC백화점'은 젊음의 거리인 '충장로'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중심으로

2030 젊은 층을 우선 타깃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 1층부터 11층까지 200~250여개의 브랜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NC백화점'에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국산 SPA 브랜드가 입점할 가능성이 높아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명품 직매입 편집숍과 주방·침구 등 인테리어용품을 모아놓은 '모던하우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밀착형 백화점을 지향하는 'NC백화점'은 순천점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두 번째 점포다.

하지만 최근 이랜드그룹이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을 장기계약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마트 1821명 정규직 전환

5월부터...광주 15명·전남 20명 혜택

이마트는 25일 의류 전문판매사원 1821명을 오는 5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앞서 지난 4월 상품 진열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내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 도급사원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들은 전원이 보장되고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상여금과 성과급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학자금·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건강검진, 회사 보유 휴양시설 이용 등 복지혜택도 받는다.

이마트는 이번 판매사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진열도급사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760억원에 달한다.

허인철 대표는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이라는 본질적 노력은 물론, 입직원의 고용정책과 기업문화에 있어서도 종업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범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 모처럼 웃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28.96P 올라 1,977.67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등의 영향으로 25일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내렸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던 키프로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각종 국내의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8.96포인트(1.49%) 오른 1,977.67로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20.14포인트(1.03%) 오른 1,968.85로 개장한 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방안 합의의 소식에 하락 폭을 확대했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방안 합의의 소식에 가장 큰 폭의 변동은 없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약화로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8.50원 내린 1,110.8원

경차도 안팔린다

1년새 판매 8% 줄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그간 불황에 감세를 보였던 경차까지 판매가 감소했다.

25일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올 1~2월 기아차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 판매는 2만87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다.

국내 경차 시장은 2006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계속 성장세였으나 7년 만인 올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시장 전체 규모(수입차 제외)는 121만9035대에서 141만685대로 경차에 훨씬 못 미치는 15.7% 증가에 그쳤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2013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이사장 송기진)은 25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37개대학교 77명의 광주은행 장학학생과 광주은행 임원 및 본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광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덩치만 커진 '상호금융조합'

예금 급증...돈 굴릴 곳 없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시중자금을 290조원 넘게 빨아들었다. 자금 운용처가 마땅치 않아 부실 위험이 커졌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352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신탁 자산이 5조7000억원(11.6%) 늘었고 농협 자산도 15조2000억원(5.9%) 늘어났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이 증가

한 배경에는 비교해 혜택과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저축은행 이탈 자금의 유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금융조합의 수신 잔액은 21조8000억원(8.0%) 늘어 지난해 말 291조6000억원이다. 여신 잔액은 5조7000억원(2.8%) 늘어난 205조 7000억원이다. 예대율(여신/수신)은 70.5%로 3.6%포인트 하락했다.

양 팀장은 "가계부채 증가 여파로 대출(여신)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수신 증가세가 지속해 여유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하거나 수익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 전남지부 수자원 관리평가 1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5일 2012년 수자원관리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제21회 세계물의 날(3월 22일)'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정부, 국회, 농업유관기관, 물관련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지구적 패러다임, 물-식량-에너지'라는 주제로 박은경 외교교통부 수자원 협력대사의 특별강연과 KCID총회, 농어촌 물포럼 회의 등의 행사가 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러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전남본부에 비롯한 13개 부서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물관리 유공자로 선정된 12명에 대한 '하백(河伯)상' 시상이 이어졌다.

김행윤 본부장은 "수자원관리와 수질관리, 시설물 관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영예로운 수상"이라며 "위기대응능력 향상과 과학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실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안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농협, 직거래 구매단 산지방문 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최근 장성군 남면 해암농장(대표 백재호)에서 40여명의 소비자(주부)를 대상으로 농사체험과 우수한 농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는 주부 농산물 직거래 구매단 산지방문 행사를 가졌다.

2013

고흥 우주항공축제

GOHEUNG SPACE - AIR FESTIVAL

주최: 고흥군
주최: 고흥군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참여기관: KARI 나로 우주센터우주국립기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항공 전시·체험 행사 80여종

행사안내 www.festival.goheung.go.kr
061)830-5224

네비게이션 고흥우주항공축제 / 고흥만 방조제 / 용동리 산6-1 검색

고흥 대중상단편영화제

THE 50TH DAEJONG FILM AWARDS 2013

주최: 대중상단편영화제
주관: 대중상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 고흥군
후원: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한국영화배우협회, 영화진흥위원회, 전라남도

레드카펫, 출판작 상영, K팝스타 축하공연 등

2013. 4. 18(목)~21(일) 4일간

고흥만 일원 [도덕면 용동지구]